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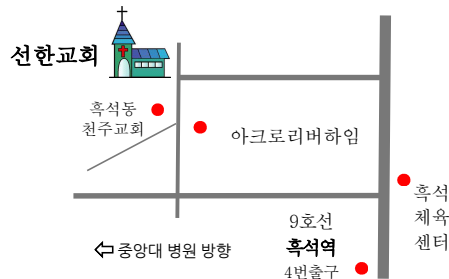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유 아 부	오전 10:00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청 년 부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비 전 위 십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남전도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바 울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마리아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드보라회	오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목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박 회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 독 문	교독문 6번 (시편 10편)		
찬 양 과 경 배	453장 (통일찬송가 506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디모데후서 2장 7~13절		시 35:1~8
설 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임춘배 목사)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알토 파트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기 도	김혜선 권사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말 씬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의 멸망 I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기 도	인도자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악인과 의인의 결말 (시 37편 1~11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점심: 부서별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여호수아회)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특 별 구 호 현 금	다음 주일에 튀르키예(터키)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신 임 권 사 교 육	2부 예배 후, 4층 상담실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4. 주 차 안 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2)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5. 유 초 등 부 겨 울 성 경 학 교	2월 5일, 12일, 19일, 26일 주일(4주) 주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	
6. 청 소 년 부 겨 울 수 련 회	2월 25일(토)~26일(주일) 주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7. 선 한 교 회 장 학 생 선 발	2월 5일(주일)~19일(주일) 자정까지 2주간. * 신청방법 ① 이메일: jgw1025@naver.com ② 서면제출: 장학금 안내 서류 및 신청서는 본당 뒤편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경조장학부 정구원 집사(010-5800-2692).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	--

찬송 : '다 감사드리세' 66장(통 20)

본문 : 에베소서 2장 1~10절

말씀 :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8~9절)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구원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감사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5절) 우리는 이전에 죽어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돈이나 지위,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마당에 자존심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 죽었던 우리는 살아날 가망성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큰돈을 기부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위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기만 죽을 위해 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많은 일을 이뤄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돈을 충분히 벌어도 더 벌고 싶어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소리를 기꺼이 무시합니다.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남이 불행해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3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매사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만 헤아려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꼭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최고가 됩니까. 더 유명해질 필요도, 더 큰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는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이 허락한 소중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집의 모든 물건, 친구와 자녀, 인생의 모든 과정과 역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지만 교만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곧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로 채우길 바랍니다.

제 목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딤후 2:7~13)

서 론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론

1.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 (1)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8절).
- (2)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은 것을 생각함(9절).
- (3)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을 생각함(11,12절)

2. 교훈

- (1)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 (2)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는 것이 왜 중요한가?
- (3)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가?

결 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인섭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예배 기도	김혜선 권사	오세일 권사
주 방 봉 사	여호수아회	루디아회

매일 Q.T.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 진실하게 섬길 하나님	날짜 : 2월 13일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사무엘상 12:16~25		
말씀요약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묵상질문 1	우레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12:16~19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연 현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묵상질문 2	사무엘의 마지막 권고 12:20~25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상기시키며 백성에게 권면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나는 어떤 삶으로 응답할까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2장 24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경외심을 낳고, 경외심은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20~25절). 그 핵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이 차오릅니다. 또한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은 훌륭한 신앙 영웅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연이은 소낙비로 제 인생을 돌이키시려고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악을 더하는 삶을 멈추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기도하며 걷는 저와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찬양과 기도	예수 따라가며 (새 449)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업무상 잘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말도 편하게 할 수 없으며, 동료들과도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나요?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12:16~25
묵상포인트	길갈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비록 정치 제도가 바뀌고 인간 왕이 다스리게 되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매사에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남은 생애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밝히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7~18절)
적용하기	한 주간 삶에서 나의 왕은 누구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왕으로 여기며 그의 생각을 따랐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저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로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기도	

매일 Q.T.		어리석은 금식 선포, 계명을 범하는 백성	날짜 : 2월 17일
찬양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본문	사무엘상 14:24~35		
말씀요약	사울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백성에게 맹세시킵니다. 요나단은 이를 물랐기에 벌집의 꿀을 먹습니다. 몹시 허기진 백성이 탈취한 짐승을 잡아 피째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큰 돌 하나를 굴러다가 거기서 짐승을 잡도록 명합니다.		
목상질문 1	금식을 맹세시키는 사울 14:24~30 사울의 금식 선포와 맹세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했나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기가 혹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목상질문 2	음식 규례를 어긴 백성 14:31~35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4장 33절 ‘무모함’과 ‘불순종’은 믿음 없음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허기진 백성에게 무모한 금식 명령을 내리고(24절), 배고픔을 찾지 못한 백성은 고기를 피째 먹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합니다. 백성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과 왕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울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려는 무모함과 오만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선한 결과를 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소서.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저의 열심만 앞세워 공동체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매일 Q.T.		인간적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	날짜 : 2월 14일
찬양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본문	사무엘상 13:1~12		
말씀요약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므마스에 진 치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는 숨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난 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을 추궁합니다.		
목상질문 1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사울 13:1~7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어떻게 달랐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목상질문 2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 13:8~12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만일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3장 11~12절 믿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순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순종합니다. ‘부득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합당한 이유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순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한지, 혹은 실현 가능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았던 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열심과 열정을 쏟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그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계명을 무시한 망령된 행실의 결과	날짜 : 2월 15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사무엘상 13:13~23		
말씀요약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서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목상질문 1	사울을 질책하는 사무엘 13:13~15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질책했나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사울의 열악한 군대 13:16~23 인원수와 무기 면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각각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뛰어난 조건을 갖춘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흠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건과 배경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상대적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절대 일치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순종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촉박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제게 도움을 줄 병사나 무기가 부족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매일 Q.T.		요나단의 신앙과 용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날짜 : 2월 16일
찬양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사무엘상 14:1~23		
말씀요약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며,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기 동무를 서로 치니 그 진영이 크게 혼란해집니다. 블레셋을 돕던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과 합세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목상질문 1	표징을 구하는 요나단 14:1~10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목상질문 2	승리한 요나단 14:11~23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내가 성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힘을 다해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14장 6절 일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수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거느린 600명의 군대는 병거 3만 대, 마병 6,000명을 앞세운 블레셋의 병력에 압도당합니다(13:5,15). 블레셋 군사 수와 철제 무기의 위용은 이스라엘에게 공포 자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수적 열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셈법은 무의미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게 맡겨진 문제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저를 대신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